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여세 몰아

# 이젠 동아시아대회 광주 유치에 총력을

2013년 제6회 동아시아게임은 광주에서!

지난 17일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축제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 유치되면서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신청을 한 광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광주와 제주도가 동아시아경기대회 국내유치도시로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체육인프라 구축 등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도시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가 동아시아경기대회 국내도시로 선정되면 오는 6~7월경 홍콩에서 동아시아게임(EAGA) 상임위원회 9개국 대표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된다.

동아시아게임을 광주에서 치를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는 못미치지 만 직간접적 경제효과와 도시 브랜드 제고, 시민통합이라는 무형의 효과까지 전방위에 걸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환산하기 어렵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에는 10개국 5천여명이 참가하며 관람 인원은 1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 유발효과는 5조1천731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230억원, 고용유발효과 10만7천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경우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종합대회의 개최와 병행,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하면 문화수도의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영남권은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년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규모 체육대회가 개최됐으나 호남권은 대규모 국제대회가 단 한번도 없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주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체육회는 지난해 7월 유치의향서를 대한체육회(KOC)에 제출했고, 지난해 8월 10일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김창준) 사무소를 개소, 김창준위원장 등 위원 13명, 상임위원 4명이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우고 대한체육회와 정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KOC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광주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려야 하는 당위성과 광주의 준비된

인프라 등을

설명하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박삼구 금융그룹 회장이 명예유치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유치가 힘을 보태고 있다.

김창준 위원장은 “동아시아경기대회 국내개최도시 선정에는 대한체육회에서도 광주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동아시아게임 상임위원회 9개국 대표들에게 맨투맨 밀담작업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광주유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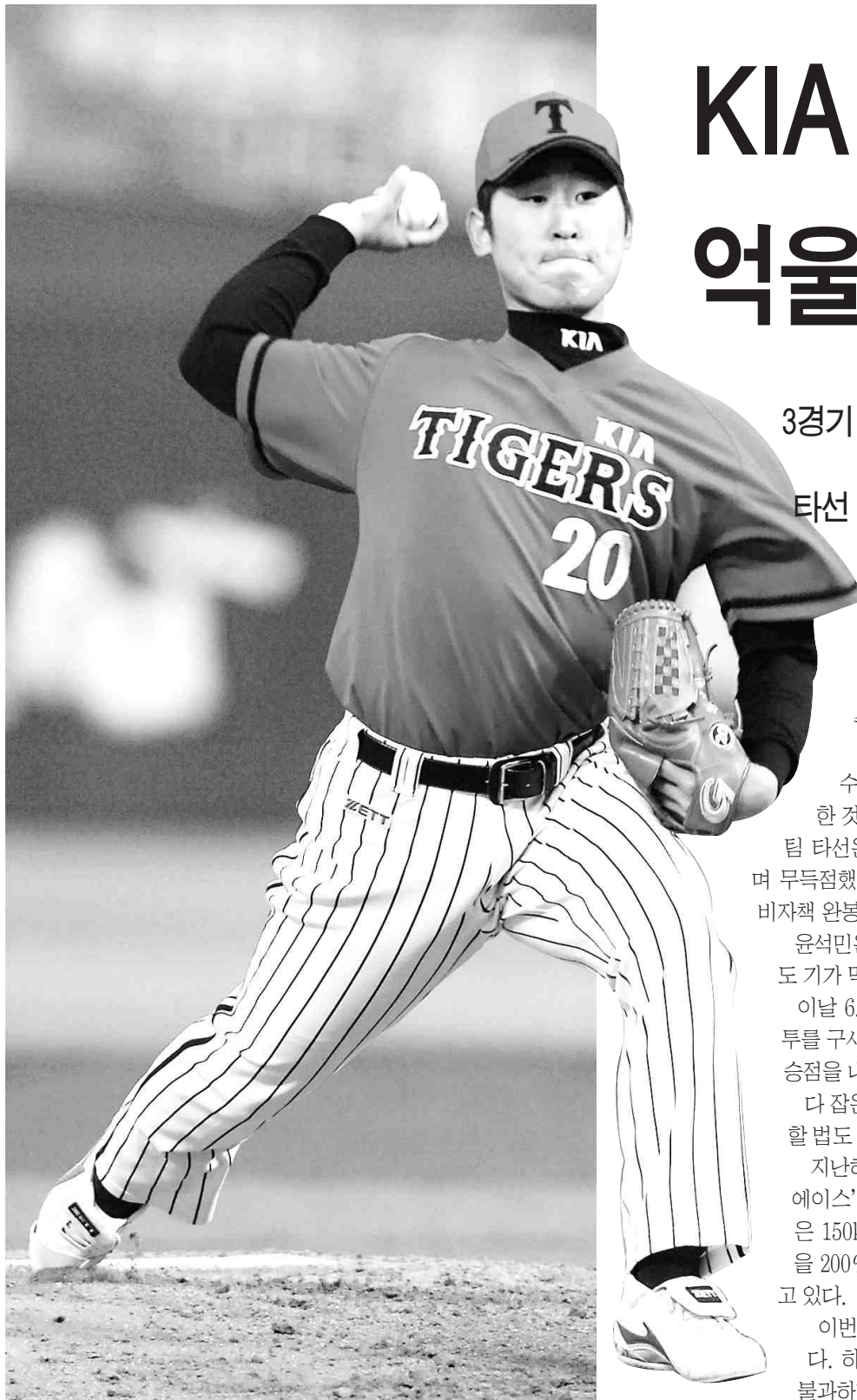
한편 동아시아경기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10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5천여명이 참가해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국제적인 큰 행사다.

지난 1992년 동아시아올림픽위원회 북경회의 때 창설돼 1993년 중국(상해) 개최를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국내도시 선정엔 큰 문제 없을 듯

## 상임위 9개국 대상 득표작업 시급



# KIA 윤석민 억울한 3패

3경기 방어율 1.96 쾌투 불구

타선 침묵에 실책 겹쳐 불운

윤석민은 지난 17일 인천 문학 SK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피안타 1개, 볼넷 2개만 내주고 탈삼진은 7개나 잡아내는 호투를 선보였지만 패전투수가 됐다.

1안타만 허용했는데 그것이 2사 후 2루수 김중국의 실책과 연결돼 1실점(비자책)한 것.

팀 타선은 8안타를 터트렸지만 10장투만 기록하며 무득점했고, 윤석민은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0-1 비자책 완봉패라는 웃지 못할 진기록마저 세웠다.

윤석민은 지난 6일 열린 잠실 LG와의 개막전서도기가 막히게 잘 던졌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날 6.1이닝 6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완벽투를 구사한 윤석민은 역시 수비진의 실책으로 결승점을 내줬고, 결과는 0-1패.

다 잡은 경기들, 그것도 두 경기나 진 탓에 속상할 법도 하지만 윤석민은 그래도 웃는다.

지난해 마무리에서 윗대는 선발, 그것도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빈자리인 1선발을 꿰찬 윤석민은 150km의 강속구와 '송곳' 제구력으로 제 몫을 200% 이상 해내고 있지만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번 시즌 3경기에 등판, 모두 패전 투수가 됐다. 하지만 18.1이닝을 던져 방어율은 1.96에 불과하다. 컨디션은 최상이지만 타선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윤석민에게 “팀 타선에 불만이 없느냐”고 살짝 물어보니, 되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윤석민은 “동료 모두가 이기기 위해 싸우지, 지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팀 선배들이 부담감을 가질까봐 걱정이다. 1점 징크스를 끊기위해서라도 다음 경기는 동료들과 함께 꼭 승리하겠다”며 밝게 웃었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 이승엽 4호 홈런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1)이 시즌 4호 홈런을 작렬했다.

이승엽은 18일 일본 교세라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지던 2회 선두 타자로 나와 풀카운트에서 상대 선발 아오키가 던진 7구째 직구(138km)를 감파, 오른쪽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대형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아오키는 지난 12일 첫 타석에서 이승엽에게 종월 2루타를 맞은 신인투수. 회심의 몸쪽 직구를 던졌지만 노련한 이승엽에게 걸려들었다.

지난 15일 야쿠르트 스왈로즈전에서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렸던 이승엽은 3일만에 홈런을 추가하면서 식지않은 타격감을 확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일(목)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뉴욕Y>(07:55·Xports)

▲대학농구<중앙대-고려대>(13:50·MBC)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1R(14:00·Xports)

▲KRA컵 국제승마대회(14:10·KBS1)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스포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울산모비스-부산KTF>(18:00·KBC)

▲프로야구<SK-KIA>(18:30·MBC ESPN), <한화-LG>(18:00·KBS SPORTS)

3경기(18.10이닝) 통산 방어율 1.96, 이 중 2경기는 0.00. 그 런데 결과는 아이없게도 3패다.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불운한 투수'의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그 지리지 운없는 주인공이 다음이 KIA 투수 윤석민(21)이다.

# ‘내기 골프’ 타당 5천~1만원 가장 많아

## 골프팁스코리아 설문조사

아마추어 남자 골퍼들이 플레이를 바진감 있게 하기 위해 가는 돈은 타당 5천~1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회원과 골프팁스코리아가 홈페이지 방문자와 서울·경기지역 골퍼연습장 고객 1천428명(남자 1천185명, 여자 24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86.3%(1천23명), 여자의 54.3%(132명)가 각각 골프를 할 때 내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타당 5천~1만원이 40.1%로 가장 많았고, 1천~2천원은 27.8%, 3천~4천원은 22.0%였다. 타당 1만~2만원을 가는 사례는 8.5%, 2만원 이상을 걸고 치는 골퍼도 1.5%나 됐다.

# 전남선발금 6개

대통령기 시도대항 불링

전남선발금이 제2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불링대회에서 금6, 은3, 동2개를 획득했다. 전남선발금은 지난 6~18일까지 광주 ABC불링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광양시청이 남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일궈냈으며 고흥실고·육과고연합팀이 여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KSCB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정 병원** 전남동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산 첨단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군 한중가정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성재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의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원 234-7571 특구 한술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알자정형외과의원 571-2277 상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연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유병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중심의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중심의과의원 365-7582 호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02-8561 나주 이필수외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호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강병원 720-3500 모듬민내과 725-7568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

#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062)262-2278